라면·세제·돼지고기 값 등 'MB관리품목' 30개나 올라

"물가가 사람잡네" 서민 아우성

빵값·학원비까지 급등
오름세 꺾이지 않을듯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뛰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일 광주시내 한 재래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상인들과 흥정을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주부 P모(46·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주말 쇼핑차 모 백화점에 들렀다가 가벼워진 장바구니에 깜짝 놀랐다. 지난 5월 초만 해도 10만원을 들고 나서면 4명의 가족이 일주일은 충분히 먹을 정도의 식료품을 살 수 있었는데, 눈에 띄게 장바구니 부피가 줄어든 것이다.

라면(20개)은 지난해 5월 초보다 16%나 오른 1만2천400원이었고, 세제(3.5kg)는 10% 오른 1만5천원에 구입했다. 쇠고기(600g)와 돼지고기(갈비·600g)도 각각 12.7%, 21.7% 오른 3만3천원, 8천280원까지 뛰었다.

국제 곡물가와 각종 원자재값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국내 생필품 가격도 크게 올라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이른바 'MB관리품목'으로 52개를 지정한지 2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잰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주요 생필품 52개 중 30개 품목이 올랐고 9개 품목은 내렸으며 13개 품목은 변동이 없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지난달 21일 제빵용 강력분 28%, 중력분과 박력분 17~18% 올라 이를 원료로 한 빵·라면·자장면·과자 등의 소비자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추장(1kg)은 지난 3월 6천500원에서 5월 6천780원으로 4.3%올랐고, 고등어(마리·국내산)는 3천180원→3천580원(12.6%), 빵(옥수수식빵) 1천200원→1천400원(16.7%)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대비 3.9% 올랐으며,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152개 품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4.9%나 뛰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물가목표치인 3.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광주시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부 농산물은 현지 시세 상승분이 아직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품목이 있다"고 말했다.

생필품 가격인상도 문제지만, 지난달 초부터 제품중량을 줄이는 방식을 가격을 올린 제과업체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대형마트 가격기준으로 크라운제과 '산도'는 3월 초에 비해 가격은 그대로(3천180원)지만, 용량은 408g(20개입)에서 323g(16개입)으로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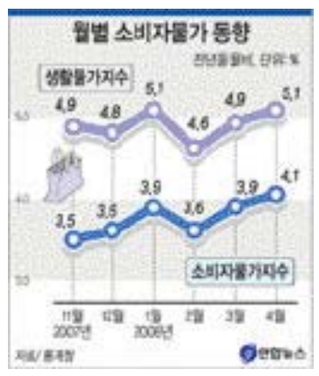
일부 학원의 경우 학원비는 그대로 두고 교재비를 대폭 올리거나 특강과목을을 개설 또는 과목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실질 학원비를 인상하는 곳들도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은 관리대상 품목이 많아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면서 "소비자 물가 또는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와 대학교 등록금 등 교육 납입금, 집세 등 주거비에 대한 물가관리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소비자물가 지수도 '고공행진'

광주, 4월 중 4.4% 상승 … 2005년 이후 최고
전남도 4.3% ↑ … 6개월째 올라 가계 '겹주름'



지난달 광주·전남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 속에 농산물과 공업제품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2005년 지수 개편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특히 광주·전남은 밀가루와 휘발유 등 '장바구니' 물가도 6개월째 5%대의 '고공행진'을 벌이는 등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9.0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 비해 4.4%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05년 물가지수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 전년 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이 4.3%에 달하면서 6개월째 3.5%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처럼 물가가 급등한 것은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가격 폭등 속에 농산물과 공업제품 등의 가격인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양배추가 1년 전보다 165.2%나 오른 가운데 ▲밀가루(66.2%) ▲쓰레기봉투료(56.5%) ▲부침가루(51.7%) ▲금반지(49.2%) ▲경유(31.4%) 등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뛰었다.

특히 광주·전남은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각각 5.6%, 5.5% 치솟았다. 이같은 생활물가 오름세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5%를 웃돌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란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지수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의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에 달했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4%대를 넘어선 것은 2004년 8월(4.8%) 이후 3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채소·과일 값은 보합세

출하량·수요 변동 없어 … 한우값 소폭 하락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채소류와 과일류는 출하량에 큰 변화가 없고 수요도 꾸준해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한우가격은 약간 하락했다.

1일 농협하나로 클럽 양재점에 따르면 배추(1포기)는 저장상품 출하가 끝나감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지고 일자별 상품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소 유동적이나 대체적인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2천500원이었다.

대파(1단)는 전남지방과 경기지방 상품이 출하되기 시작해 가격이 소폭 내림세를 보여 전주보다 150원(12.5%) 내린 1천50원이었다. 세척무(1개)는 제주지역의 출하량감소로 시세는 강세이나 5월 중순 흙무가 출하되면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며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950원이었다.

상추(100g)는 물량과 수요 모두 큰 변동 없어 전주와 동일한 440원이었고, 남부지방에서 주로 출하되는 감자는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전주보다 150원(5.1%) 내린 2천800원이었다. 양파(3Kg)는 제주도 지방 햇양파가 대부분이라 가격이 강세이고 남부와 경기지방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까지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4천300원이었다. /연합뉴스

부부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늘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부부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다른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협업 농어업인 부부의 경우 국고지원을 받던 한 명이 연금수급 등으로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면 다른 한 명이 협업 농어업인이라도 국민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 884억원을 들여 27만3천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9년형 스포티지' 나왔다

기아차 시판 … 외관 스타일·연비 개선

기아자동차㈜가 외관 스타일과 연비를 개선한 2009년형 스포티지를 2일부터 시판한다. 〈사진〉

2009년형 스포티지는 TLX 최고급형 이상 모델과 가솔린 TLX 모델에 17인치 타이어와 알루미늄 휠을 기본으로 장착해 더욱 당당하고 역동적인 외관 스타일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 주력차종인 디젤 2WD A/T 차종의 연비효율 개선을 통해 기존(12.6km/ℓ)보다 6.3% 높아진 13.1km/ℓ로 국내 소형 SUV 차량 중 최고 수준의 연비를 확보했으며, 밝은 금색 계열의 '샤이니 골드' 색상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편, 기아차는 2009년형 스포티지 출시와 함께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각종 사양을 추가한 'VIP팩'을 신설했다.

2009년형 스포티지의 가격은 2륜구동 모델 1천831만~2천486만원, VIP팩 2천195만원, 4륜구동 모델 1천91만~2천45만원(이상 수동변속기 기준), 2.0 가솔린 모델은 1천23만~1천42만원(자동변속기 기준)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제 5회 농촌사랑
전국주부 글잔치
농협전남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촌사랑 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제5회 농촌사랑 전국 주부 글잔치' 행사를 갖는다.

응모자격은 20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주부(결혼이민자 포함)로 우리 농축산물 애용 실천수기,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농촌체험, 농촌일손돕기, 농촌봉사활동 등 농촌사랑,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담은 수필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고향주부모임 홈페이지(www.gohyangjubu.com)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5-19 (사)고향주부모임 '주부글잔치 담당자'에게 우편발송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